

근대적 삶의 곡절, 대중가요로 변주하다

‘이달의 책’ ... 장유정의 《오빠는 풍각쟁이야》

장유정 지음 | 민음in | 436쪽 | 값 22,000원

사물의 복선伏線을 캐고, 현상 아래 잠복한 의미를 발견하며, 진부한 세간의 법칙에 방심하지 않는 분별력은 줄기찬 독서의 힘말곤 달리 그 연원을 찾기 어렵다.

아닌게 아니라 즐린 듯한 뇌리를 단박에 일깨우는 읽을거리가 이 달에도 넘쳐났다. 개중엔 동북아 역사의 속살을 캐묻는 가 하면, 세태의 관행적 미덕에 대해 ‘침략주의’ 라며 토를 달거나, 대중가요로부터 연역된 근현대 한반도 민중의 숙명 한 자락을 펼쳐보이기도 했다. 네 분 선정위원에게 ‘이달의 책’ 선정작업을 의뢰하기에 앞서 <출판저널>은 것처럼 각별한 태도로 시공간의 것들을 응시한 책 10권을 골라봤다. 결혼 제도의 억압적이고 독선적인 함의를 묻고자 함일까.

제목부터가 요상한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를 위시, 김운희의 《대주신을 찾아서》(1·2), 김웅교의 《시인 신동엽》, 구효서의 산문집 《인생은 깊어간다》, 라가치상에 빛나는 고경숙의 그림동화 《마법에 걸린 병》 등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또 들뢰즈, 푸코 등의 철학적 프리즘으로 칸트를 들여다본 한국칸트학회의 《포스트모던 칸트》, 친환경농업론자 천규석의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인문학자 장유정의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정우의 지적 사유가 빛을 발한 《탐독-유목적 사유의 탄생》, 거꾸로 본 경제원론이라고 할 원용찬의《상상+경제학블로그》 등도 ‘이달의 책’에 명함을 내민 것들이다.

강원원 철학박사는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를 1위로 추천한데 이어 《오빠는 풍각쟁이야》 《상상+경제학블로그》 등을 주목할 만한 책으로 꼽았다.

강 박사는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의 메시지에 대해 “유목주의가 침략주의임을 새삼스럽게 논증할 필요가 없는, 너무도 자명한 명제”라고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 명제를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발언의 힘은 달라진다”고 새롭게 의미를 새겼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그것을 말할 만한 힘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비판받는 ‘지식인’들은 그런 말을 들을만 하다.”고 단언하는 한편, “다만 이 책은 ‘지역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지상명제를 주장하기 위한 시도이며, 따라서 논증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박사는 또 “이 명제를 현대의 화급한 과제로서 받아들인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인데, 저자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확고한 반대 신념위에 이것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들뢰즈, 가타리 등의 ‘유목주의 철학’에 대한 성찰은 불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무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부분을 제외하면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고 이 책을 맨 먼저 추천한 까닭을 밝혔다.

20세기 전반의 대중가요에 관한 탐구는 20세기 한반도에 대한 미시사적 관심이라는 전반적인 범위에 속해있다는 게 강 박사의 생각이다. 그런 이유에서 《오빠는 풍각쟁이야》는 “이미 출간된 더 넓은 범위의 책을 읽은 후에 읽어볼 만한 책이며, 대중가요에 주목하는 까닭은 지극히 상식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상식을 파고드는 학적인 노고가 있다”고 파악한 그는 “이러한 미시사들

이 차곡차곡 쌓이면 20세기 전반 한반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책은 그러한 목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지적 효용을 인정했다. 다만 (대중가요가 나아가야 할 길)과 같은 상투적인 섹션이 결론부분에 들어가 진부함을 띄게 된 것이 아쉬운 점”이란 고언도 잊지 않았다.

《상상+경제학블로그》에 대해 강 박사는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이면서 동시에 경제학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는 무관한 일종의 숫자놀이로 전락한 것까지 암시한 점”을 높이 샀다. 다만 “저자 자신이 현실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좀 더 역동적인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 김종심 위원장은 “<출판저널>에서 고른 10권의 책 중에서 원용찬의 《상상 경제학 블로그》, 이정우의 《탐독》, 장유정의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놓고 고민하다가 원용찬의 《상상 경제학 블로그》를 ‘이달의 책’으로 추천기로 했다”고 나름의 ‘마음 고생’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상상 경제학 블로그》는 우선 건조하고 딱딱한 경제학을 생활 주변의 문제로부터 알기 쉽게 풀어나간 점이 좋았다”며 “글의 형식이 에세이 형식이어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무엇보다도 ‘적게 요구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일관된 시각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경제’를 추구하는 점이 독자들로부터 크게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였다”는 김 위원장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영역들이 이 책에서 반짝이며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경제를 설명하면서 신화 인류학 철학

역사 문학을 간간히 넘나드는 지적 소요가 독서행위의 긴장을 적절히 완화시켜 줌으로써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점'에도 점수를 주었다.

김 위원장은 “《오빠는 풍각쟁이야》는 일제하 우리나라 대중의 삶과 문화를 당시의 유행가를 통해서 읽어낸 책”으로 평가했으며, “체험적 책 순례를 통해 책이 외면당하는 시대에 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탐독》도 추천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천규석의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김운희의 《대주신을 찾아서》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대로 읽는 재미가 만만치 않은 책”으로 꼽았다.

신중호 월간 《복새통》 편집장은 《탐독》, 《대주신을 찾아서》, 《아내가 결혼했다》의 순으로 추천의 변을 남겼다.

신 편집장은 책의 가치를 따지기 앞서 “사회의 제반 영토를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 고착된 것을 새롭게 유통시키는 것이 유목 정신이라면 그것을 지탱하고 발현시키는 힘은 끊임없는 독서와 사유의 여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탐독》-유목적 사유의 탄생”은 독서와 철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읽고 사유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독서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진실과 대면하는 것이 유목의 사유임을 알게 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문학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철학으로 끊임없이 유통하는 이정우의 지적 순례는 이 시대의 교양의 좌표로 손색이 없다.”고 저자의 지성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주신을 찾아서》에 대해 신 편집장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민족적 기원을 ‘쥬신’(Jusin)에서 찾고 있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내용은 “주장의 시비 이전에 고대사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면서 “한국인은 반도쥬신, 일본인은 열도쥬신, 만주인은 만주쥬신, 몽골인은 몽골쥬신으로 위치시키면서 동북아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방대한 자료와 흥미로운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고대사에 대한 안목을 세세히 키워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추천의 이유를 들었다.

박찬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일부일처제란 사랑의 완결인가, 아니면 대안이 무언가라는 딜레마로 남성중심의 결혼제도에 발랄한 브레이크를 거는 소설”이라고 정의했다.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는 도발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무겁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읽고난 느낌을 전한 신 편집장은 “사랑과 결혼제도의 문제를 축구의 규칙과 절묘하게 결합해서 시종일관 스피드하게 스토리를 끌고 가며, 한 경기에 두 명의 골키퍼를 동시에 내보낸 아내의 반칙이 끝까지 갈까싶은 궁금함이 남는다”고 했다.

중앙일보 조우석 부장(문화전문기자)은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이 달의 책’으로 꼽았다. 뒤이어 《마법에 걸린 병》 《포스트모던 칸트》도 그 못지않은 양서로 추천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에 대해 조 부장은 “최근 2~3년 새 나온 대중가요를 소재로 한 읽을거리의 맥을 잇는 문제작”이라며 ‘홍남부두의 금순이’ 등 한국 팝문화의 ‘고고학’의 바톤을 잇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떨어지는 글맛과 생활사 재구성 상의 뚜렷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줄 만하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마법에 걸린 병》을 두고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창작 동화 쿼터제를 뒤야 할 정도로 번역 그림책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런 정글의 구조 속에서 나온 의미있는 흥런볼”로 표현했다. “한마디로 창작동화의 승리를 알리고, 어린이가 정말로 무얼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저술 태도를 칭찬했다.

《포스트모던 칸트》는 “한마디로 ‘우리 말로 철학하기’의 한 전범을 보여준 책”이란 게 조 부장의 평가다. “접근이 딱딱해서 문제이지만, 국내 인문학의 한 속살을 보여주었다”는 점만으로도 양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

종합하면 강유원 박사는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상상+경제학블로그》, 김중심 위원장은 《상상 경제학 블로그》 《탐독》 《오빠는 풍각쟁이야》, 신중호 편집장은 《탐독》 《대주신을 찾아서》 《아내가 결혼했다》, 조우석 부장은 《오빠는 풍각쟁이야》 《마법에 걸린 병》 《포스트모던 칸트》를 각기 천거했다. 상당히 엇갈린 판단이긴 하나, 그 중 세 분 공통으로 추천한 책이 《오빠는 풍각쟁이야》다. 결국 ‘이 달의 책’의 영예는 장우정의 《오빠는 풍각쟁이야》에 돌아간 셈이다.

대중가요는 한 시대의 꾸밈없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한때 가요제에도 출전할 만큼 대중가요 마니아였던 저자는 《오빠는 풍각쟁이야》에서 대중가요의 본질을 ‘시대적 삶의 위안물’로 천착했다. 20세기 이후 한국사회를 풍미했던 가요와 가수, 그 시절 사람과 자료에 관한 고증과 기록의 정밀함은 차치하고라도, 근대적 삶의 문법을 대중가요로 치환해낸 저술 태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말이 근대이지, 20세기 전반을 지은이는 ‘전근대’로 파악한다. “전근대적 감각과 자의식 위해 ‘외부’의 근대적인 것이 덮쳐 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중은 혼란했고, 그 우여곡절을 변주한 것이 대중가요였다. 저자 장우정이 서설에서부터 ‘왜 20세기 전반 대중가요인가?’라고 자문과도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성기 음반과 대중가요의 형성》 《대중가요의 수용 양상》 《대중 정서의 문학적 구현 양상》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적 위상과 의의》 등 언뜻 제목만 봐선 영락없이 아카데미한 이론서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팬클럽이 있었고, 눈을 가린 여성 가수가 무대에 오르고, 목소리에 반한 청년들이 팬레터를 보냈던’ 일화 만큼이나 흥미롭게 대중가요의 프리즘으로 당대의 정서를 풀어헤치고 있다. 대중가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10여 년 간 축적한 자료를 엮어낸 책이다.